



새로 나온 책

과학자의 책무, 대중적 글로 의미 전달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바꿨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꾸준히 이뤄져 왔다. 특히 지난 세기를 거치며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됐다.

인터넷과 SNS, 가정용 전자기기에 적용된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학기술이 이뤄낸 각종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살아간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수많은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 큰 변화 앞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과학의 중요성을 한층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바야흐로 '과학 전성시대'다. 각종 TV 프로그램에 과학자들이 패널로 등장하는 모습도 이제는 낯설지 않다. 어려운 과학이 대중과 점차 가까워지는 시대이자 과학자들의 다양한 역할이 점점 더 요구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공계 전공자, 자연과학 분야 종사자라고 해서 글쓰기와 담을 쌓고 살던 시대도 끝났다.

저자는 과학자들이 전문지식을 기반



과학자의 글쓰기

최병관 지음/지식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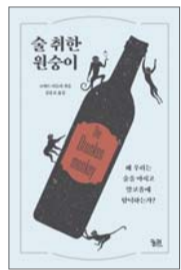
으로 대중에게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게 지식인의 책무라고 이야기한다. 논문 등 학술적 글쓰기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을 위한 대중적 글쓰기 능력도 필요한 때가 온 것이다.

과학 글쓰기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과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비법을 전수한다. 객관적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과학 글쓰기의 기본과 핵심 요령, 글쓰기 훈련 방법을 소개한다.

248쪽. 1만4000원 /김현정 기자 hjk1@

술 취한 원숭이

로버트 더러리 지음/김홍표 옮김/공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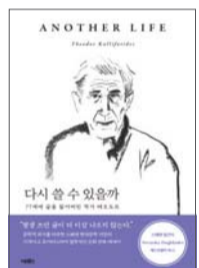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일과 후의 술 한 잔. 적당한 음주는 우리에게 창조적 영감과 사회적 유대감을 선사한다.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 그러나 과도한 음주는 간경화, 조기 사망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양날의 검처럼 즐거움과 고통을 동시에 주는 알코올. 우리는 왜 술을 마시는 걸까. 진화생물학자인 저자가 연구실과 자연의 양조장인 열대 우림을 누비며 풀어낸 알코올 소비·중독 문제의 기원.

256쪽. 1만5000원

다시 쓸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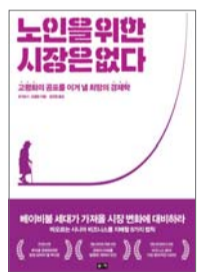
테오도르 칼리파티데스 지음/신권식 옮김/어크로스



"아예 쓰지 않는 것보다 후지게 쓰는 것이 두려웠다" 그리스 태생의 스웨덴 작가 테오도르 칼리파티데스는 이렇게 고백한다. 그는 77세가 됐을 때 40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고 정신적 에너지를 완전히 소진했다. 그리고 은퇴할 때가 왔다고 결심한다.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저주했던 그는 친구와의 대화에서 시시포스와 같은 삶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문학적 위기를 마주한 스웨덴 현대문학 거장의 지적이고 철학적인 은퇴 번복 에세이. 196쪽. 1만2000원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

조지프 F. 코글린 지음/김진원 옮김/부키



기업들이 노인을 위해 내놓은 상품은 흥행하지 않는다. 은퇴와 신체적 불편에 초점을 맞춘 태도가 노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하고 그들의 가치를 평가절하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미국 최고의 노인 시장 전문가인 저자는 노년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시기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책은 시니어 비즈니스가 빠지는 함정을 제시하고 장수 경제의 미래를 밝힐 제품과 서비스 개발 방법을 소개한다. 488쪽. 2만원 /김현정 기자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유채꽃

나의 등대는 당신 이었습니다
언제나 묵묵히 지켜봐주시던 당신

/고흥곤 작

결혼의 계절 '봄'...

호텔家の 예비부부 맛이

특급호텔들이 싱그러운 봄을 맞이해 '웨딩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강남(이하 노보텔 강남)을 비롯한 서울 시내 호텔들이 이달 중 '웨딩 쇼케이스'를 선보인다. 호텔 별로 다양한 콘셉트의 웨딩 쇼케이스가 준비돼 있는 만큼, 예비 부부들의 호응이 기대된다.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강남이 오는 28일 웨딩 쇼케이스 '더 프렌치 가든'을 개최한다. /노보텔 강남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가 오는 31일 '꿈꾸던 웨딩 그 이상, 비욘드 드림스'를 개최한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노보텔 강남

프렌치 스타일의 '싱그러운 속 우아함'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플라워 테라스·품위있는 채플식 연출

인터컨티넨탈

파티 테이블·골드 프레임 '중소형 웨딩'

◆노보텔 강남, '더 프렌치 가든' 쇼케이스

노보텔 강남은 새로운 스타일의 웨딩을 제안하는 웨딩 쇼케이스 '더 프렌치 가든 (The French garden)'을 개최한다.

'더 프렌치 가든'은 싱그러운 속 우아하고 세련된 프렌치 스타일을 콘셉트로 한다. 그린과 화이트, 핑크, 파스를 메인 색상으로 해 고급스러우면서도 내추럴한 무드를 동시에 표현한다. 순백의 패브릭으로 감싼 연회장에는 특수 조명이 설치돼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패어가 진행될 샴페인 홀은 세계적 명성의 미국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윌슨어소시에이츠'의 디자인 설계로 완성됐다. 음향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신 소재의 우드 월로 벽면을 장식해 독특한 디자인을 선보인다. 샴페인 홀의 리셉션 공간에서는 고객 참여 이벤트, 웰컴 드링크 등으로 구성된 웰컴 리셉션이 진행된다.

노보텔 강남의 '더 프렌치 가든'은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에 2층 샴페인 홀에서 진행되며, 사전 등록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담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은 봄을 맞아 처음으로 갤러리 콘셉트의 웨딩 쇼케이스 '담다(Capturing memories)'를 선보인다.

이번 웨딩 쇼케이스는 웨딩 전문 플라워 업체인 세인트 조르디 플라워(Saint Jordi Flower)와 데코레이션 협업체 꽃으로 장식된 야외 테라스 웨딩과 품위 있는 채플식 웨딩 콘셉트를 함께 연출할 예정이다.

또한 마치 갤러리에 있는 듯한 작각이 들 수 있도록 곳곳에 신랑 신부의 사진을 작품처럼 전시하고, 웨딩과 관련된 업체 부스 관람

도 가능하다.

드레스 업체인 루이엘라, 스튜디오 업체 스튜디오 흥진, 남성 예복 업체 마니도로, 청첩장 업체인 페이지 퍼블링, 답례품 업체 초록 앞치마가 참여하며, 각 업체의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문객들은 간단한 핑거 푸드와 커피 브레이크를 즐길 수 있게 웰컴 리셉션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3층에 위치한 연회장에서 웨딩 전담 매니저와 1:1상담을 받을 수 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의 웨딩 쇼케이스 '담다'는 오는 23일 오후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된다.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사전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다.

◆인터컨티넨탈, '비욘드 드림스'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새롭게 바뀐 '2019 인터컨티넨탈 웨딩'을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웨딩 쇼케이스 '꿈꾸던 웨딩 그 이상, 비욘드 드림스(Beyond Dreams, 이하 비욘드 드림스)'를 개최한다.

웨딩 쇼케이스가 진행될 하모니 볼룸은 최소 300명부터 최대 600명의 하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모던하고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예비 부부들에게 사랑 받는 공간이다.

이번 웨딩 쇼케이스에서는 마치 공연장을 온 듯 발레 공연으로 무대를 연다. 실제 웨딩에 참석한 듯한 웨딩 시연에 참관할 수 있다. 최대 200명까지 수용 가능한 다이아몬드룸에는 파티형 테이블과 골드 프레임이 이용해 중소형 웨딩을 위한 새로운 스타일도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이날 웨딩 쇼케이스에 참석한 고객들을 위해 호텔 3층 연회장에서 다양한 체형 클래스를 선보인다.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의 웨딩 쇼케이스 '비욘드 드림스'는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모니 볼룸에서 진행되며, 사전 예약 시 참여할 수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롯데호텔 제주 日식당 모모야마서 '봄바다 성계알 코스' 선포

'봄날애(愛) 패키지' 연박혜택 제공

성계알 지라시시와 속 미소시루, 후식 등으로 꾸집하게 구성됐다.

롯데호텔제주은 일식당 모모야마에서 오는 5월 31일까지 입안 가득 제주 봄 바다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봄바다 성계알 코스'를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신선한 성계알로 향긋한 바다 내음을 담아낸 이 코스 메뉴는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인 성계알 계란찜, 성계알을 곁들인 사시미, 성계알 맑은국, 성계알 크림 가리비구이, 봄 야채튀김과 성계알 튀김,

성계알 지라시시와 속 미소시루, 후식 등으로 꾸집하게 구성됐다.

5월 31일까지 투숙할 수 있는 롯데호텔제주 '봄날애(愛) 패키지'의 연박 혜택으로도 '봄바다 성계알 코스'를 즐길 수 있다. 이 패키지는 디럭스 룸(레이크 뷰) 1박, 조식 2인, 풍차라운지 2인, 더 라운지 '한라봉 주스' 2잔, 시그니처 해운스 위빙 쿠션 1개, 한국 후지 필름의 일회용 필름 카메라 등으로 구성됐다.

/김민서 기자



롯데호텔제주 일식당 모모야마의 성계알 코스. /롯데호텔제주